

컨덴세이트, 미국산 대량 유입 가능성

미국 상무부, PNR·EPP 2곳 허가 ... 2015년 하루 70만배럴 수출 예상

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원유 수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첫 조치로 비정제 석유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6월24일(현지시간) 미국 상무부가 텍사스 소재 Pioneer Natural Resources(PNR)와 휴스턴 소재 Enterprise Products Partners(EPP) 등 에너지기업 2곳에게 컨덴세이트(Condensate)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.

상무부에서 수출을 감독하는 산업안보국(BIS)은 양사가 컨덴세이트를 가솔린이나 제트연료, 디젤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외국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최소한의 가공과정을 거쳐 이르면 8월 수출을 위한 선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현행 규정에 따르면, 미국기업들은 가솔린과 디젤 등 정제된 연료를 수출할 수 있지만 원유 자체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최소한의 공정을 거친 컨덴세이트를 연료로 재규정해 해외수출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시장에서는 첫 수출량은 소량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셰일가스(Shale Gas)의 하루 생산량인 300만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15년 수출량이 하루 최대 7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4/06/25>